

대상

회화나무 샘터



박 지 우 • 부산 사하초등학교 5학년

“지우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의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됐다. 서둘러 세수하고 옷 입고 동생 고은이와 함께 집을 나선다. 과일가게를 지나 오른쪽으로 돌면 분식집이 나오고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회화나무 샘터가 나온다. 매일 지나가는 길이지만 나는 이 회화나무 샘터를 좋아한다. 운동기구와 빨래터가 있어 간단하게 운동도 하고 손을 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회화나무가 전해 주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더 좋다. 봄이면 연둣빛 나뭇잎에 햇살이 비치는 것이 예쁘고 여름이면 동생이랑 매미 울음소리를 따라 하거나 매미를 찾아보는 일이 재미있다.

사실 회화나무 샘터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곳은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빨래를 하던 곳으로만 전해져 내려왔고 빨래터와 회화나무도 점점 훼손되어 가던 중이었다. 다행히 작년 가을부터 땅을 파서 회화나무 둘레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빨래를 할 수 있는 샘터도 시멘트를 바르고 넓혀서 샘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옆에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을 설치하고 주변의 환경들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다. 덕분에 요즘은 동네 어른들이 운동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고 벤치에 앉아 회화나무의 그늘을 빌려 쉬어 가는 사람들도 늘었다.

하지만 나는 공사하기 전의 회화나무 샘터도 좋았다. 그때도 엄마와 종종 이곳을 지날 때면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엄마도 어릴 때 이곳에서 놀았던 적이 있었단다!”

“정말?”

“그럼 굉장히 오래 됐겠네!”

“그렇지, 이 나무는 600살이 넘었을 걸?”

엄마의 말씀을 듣고 나는 궁금해져서 인터넷으로 이곳 회화나무 샘터를 찾아보았다. 이 샘터에 있는 회화나무는 엄마 말씀대로 650살이나 되었고 행운의 나무라고 했다. 지금은 보호수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샘터는 선사시대부터 식수로 사용되었고 물맛이 좋아 ‘단물샘’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또 물이 마르지 않아 빨래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마을 공동 빨래터였다고 한다. 더 신기했던 것은 우리 동네 이름인 ‘괴정’도 귀신 쫓는 나무 회화나무와 정자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이렇게 회화나무 샘터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니 샘터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이 회화나무 샘터가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정답게 느껴졌다. 비록 예전처럼 자연 그대로의 소박함은 사라졌지만 이곳을 더 잘 보호하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쉴 수도 있고, 운동도 하며, 무엇보다 샘터가 있어서 학교를 오고 가다가 손도 씻고 동생과 함께 물장난도 칠 수 있어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회화나무 샘터’는 오아시스처럼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이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해 줘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이 행운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소중히 아끼고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